

침묵과 말

“침묵하면 불편해지고, 말을 하면 우스워져..”

헤르타 밀러의 소설 '마음집승'의 첫 행이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른 소설가가 이렇게 대변해주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신선했다.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지도 않고 자기 느낀대로 마구 쏟아내는 말은 계산이라도 하지 않았다고 친다면, 계산된 립서비스는 어쩔 셈인가? 침묵이 금일 때는 참으로 귀하다. 오히려 무기력함이나 비굴함, 이기적 계산이 깊게 깔려있을 수 있으며 드러내지 않은 불편함을 어찌지 못해 속수무방을 떨며 하느님을 괴롭힐 확률도 높다.

흔히 말하는 칭찬의 말도 오류를 낳기 십상이다.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자기보다 높은 신분일 때 격려차 하는 말이지, 아무에게나 듣기 좋은 말을 남발하는 것은 타인의 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돌아서면 이내 알아버리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생산한다는 것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상황에 딱 맞는 좋은 말을 매번 생산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몇 가지 패턴을 반복하다가 보면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매번 듣는 사람은 식상한다.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이 내면에 깔린 쓸데없는 내용이 따라나가는 현상이 있기는 하나, 들켜야 성장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말이 자기 발견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경우와 협상 끝에 수익성있는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다르다. 직업적 특성상 말을 지독히 아끼거나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말에 대해 긴장하다가 보면 해이해졌을 때 어김없이 본성이 드러난다. 사람이어서 철저히 긴장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같은 말이 나가도록 자신을 가꾸는 일이 우선되면 가장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행동에 배어서 나온다는 것, “너 미워”라는 말을 가두고 살면 스쳐나가는 손끝조차도 매섭게 나간다. 눈 꼬리가 올라가거나 말투가 여느 사람과 달리 투박하게 나가거나 은연 중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너 미워”의 말을 증명할 행동 패턴이 드러난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좋은 말을 하려면 감정을 먼저 자유롭게 해야 말도 자유를 얻는다.

정작 해야 할 말은 감추고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이 무성하여 말이 구박을 받는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입 꼭 다물고 살고 있으면 친화력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솔직함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성인들이 성덕을 쌓으며 위악을 도구로 삼아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다. 로사 성인은 아름다운 얼굴에 검댕이칠을 하며 자신을 지켜냈고 투박하고 거친 말로 위선을 떨쳐낸 성인들도 있다.

다시 새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기보다 마음 바탕을 어떻게 다듬어야 좋은 말이 나가게 될 것인가를 궁리하며 마음정원을 손질한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 후원단체 계좌안내

성소후원회	국민	809101-04-16623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군중후원회	우리	1005-002-45937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빈첸시오회(관내지원)	국민	809101-04-164029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바보회(대외지원)	하나	843-910006-1540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장학회	하나	843-910006-64404	(재)천주교서울대교구
성음악(콘서트)후원	하나	843-910002-97705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건축기금(시설보수)	우리	1005-102-08791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 사 헌 금 (12월 15일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47,136,000	김 미카엘	200,000	박 요셉피나	50,000	총 세대수	3,736
주일봉헌금	11,107,860	오 아녜스	550,000	한 로사	100,000	총 납부세대	1,354
		손 세자요한	200,000	송 우술라	100,000		
자선주일2차헌금	6,910,770	박 베아트리체	200,000	배 바오로	300,000	지난주 납부세대	19
성소후원금 (4건)	550,000	청년단체 '꿈'	30,000	합 계 :	1,730,000	지난주 납부율(%)	36.2